

‘장애’ 바르게 이해하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만나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부터 생각한다. 아니면 애써 장애인을 외면하기도 한다. 장애인을 대할 때,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들은 장애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어울리는 일은 쉽지가 않았다. 하지만 사회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기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방법과 장애인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알아보자.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자세히 알려주자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을 때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자. “여기, 저기” 같은 표현은 피하고, “오른쪽으로 5m 쭉 간 다음, 왼쪽으로 10m 쭉 가세요”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된다.

“제 팔을 잡으세요”라고 말하지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걸음 앞에서 걷는 것이 좋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눈이다. 흰 지팡이를 만지거나 잡아끌거나 밀어내는 것은 피해야 한다.

함께 영화를 감상하자

시각장애인은 영화나 TV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함께 영화나 TV를 본다면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앉으세요”라고 말하지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주고 확인한 후 앉게 한다.

돈을 건네줄 때는 얼마짜리인지 설명하자

시각장애인에게 돈을 건네줄 때는 얼마짜리인지 설명하고 화폐를 한 장씩 건네주며 설명해준다.

청각장애인을 대할 때

천천히 말하거나 글 또는 수화로 이야기를 나누자

청각장애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입 모양을 크게 하고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쓰거나, 혹은 수화를 이용하여 말하도록 하자.

반말은 하지 말자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을 사용하는 일은 삼가도록 하자.

헐끔헐끔 쳐다보지 말자

청각장애인과 함께 있는 곳에서 속삭이며 이야기하거나 헐끔헐끔 쳐다보는 것은 실례가 된다. 청각장애인끼리 수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헐끔헐끔 보는 것도 실례가 된다.

수화는 이렇게

청각장애인과 수화를 할 때는 가슴 높이에서 양어깨를 한계점으로 하여 큰 동작과 작은 동작을 절도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

학교에서 필기한 노트를 적극적으로 빌려준다. 안내사항이나 과제물이 있을 때는 수첩 등에 적어서 보여준다. 수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서 청각장애 친구가 잘 볼 수 있는 자리로 양보해 준다.

지체장애인을 대할 때

외모를 보고 '모자란 사람' 또는 '지능이 떨어질 것' 이라고 판단하지 말자

뇌성마비 친구들은 언어장애가 있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지능이 정상 이상인 사람도 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도 많다. 팔, 다리가 흔들리고 경직된 모습을 하기 쉽고 부정확하고 느린 말을 쓴다고 하여 부족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자연스럽게 대하자

지체 장애인은 놀라거나 긴장했을 때 곤란을 느끼고 근육이 경직되어 발음이 잘 안된다. 또 움직이는 데도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떨게 된다. 이때 놀라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해준다.

언어장애가 심한 뇌성마비장애인 경우에는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며 듣도록 한다

휠체어나 크러치(목발)를 사용하는 사람을 길거리나 복도에서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준다

휠체어나 크러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길거리나 계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먼저 말을 걸어 도움을 줄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도움을 준다.

정신지체인을 대할 때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자

정신지체인도 우리들의 친구들이다. 인사를 하면 친숙하고 반가운 마음을 나눌 수 있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을 싫어 한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다고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피하는 행동은 정신지체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놀리지 말자

정신지체인에게 "바보" 등과 같은 표현을 하거나 부정

적인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은 인격적 모독이다. 정신지체인의 느린 행동을 보며 웃거나 흉내를 내는 것, 수군거리는 것도 안된다.

칭찬하자

정신지체인도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다. 쉽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친절한 마음으로 하는 일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도록 하자. 따뜻한 말과 칭찬은 정신지체인에게 큰 용기가 된다.

천천히 쉽게 이야기 하자

정신지체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자. 길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곤란하다. 그리고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하자.

올바른 장애의 표현

장애 일반

- 잘못된 호칭 : 병신, 불구자, 장애자, 정상인
- 올바른 호칭 : 장애인, 비장애인

시각장애

- 잘못된 호칭 : 장님, 소경, 봉사,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눈, 사팔뜨기
- 올바른 호칭 : 시각장애인, 사시, 사시장애인

지체장애

- 잘못된 호칭 : 앓은뱅이, 절름발이, 찌따, 굵시등, 꼬추, 굵사, 외팔이, 외팔뚝이, 난장이, 땅딸보
- 올바른 호칭 : 척추장애인, 지체장애인(절단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 잘못된 호칭 : 또라이, 바보, 얼간이, 등신, 백치, 정신박약
- 올바른 호칭 : 정신지체인, 정신지체

〈출처 : 한국복지재단 '단비'〉